

## 제2장: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논쟁 I

### ◆1교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논쟁 1

#### ▲ 교육에 대한 논의들

지난 시간에 프로타고라스 전반부를 했고요. 오늘은 64쪽을 보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의 대화편의 구성은 좀 허술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허술하다고 얘기해야 할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에 가깝다고 해야 할지.

다른 대화편들은 플라톤이 어느 정도 구성한 거죠. 프로타고라스편은 실제의 프로타고라스의 소크라테스의 만남을 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플라톤의 드라마가 완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고 툭툭 끊기죠. 하여튼 그것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요. 64쪽부터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를 대신해서 프로타고라스에게 그를 찾아온 이유가 국가의 우수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당시 아테네가 변론술, 정치 연설,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때고 그래서 마치 전쟁의 시대에 뛰어난 전사가 되는 것이 arete의 대표적인 것이었던 만큼이나. 이 시대에서는 거꾸로 뛰어난 로고스를 구성하는 사람이 arete가 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에 프로타고라스는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자신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대답하면서 그 교육의 핵심은 정치술에 있다고 말한다. 당시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였으니까, 정치술이라는 것은 특정한 직업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대답합니다. 그런 유능성, 여기서의 유능성은 arete죠. 뛰어남, 빼어남, 덕, 탁월함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여기서의 유능성은 arete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는데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arete라는 것을 과연 가르칠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고 arete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님 공동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냐는 거죠. 만약 공동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각각의 개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면화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arete를 익혀 나가는 것이냐가 이때 당시의 굉장한 논쟁거리였던 거죠. 소피스트들로서는 당연히 가르칠 수 있다고 해야겠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었으니까요.

재밌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왜 프로타고라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가르칠 수 있다고 했을 것 같은데. 프로타고라스의 곁으로 올 때까지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히포크라테스의 무지를 씻어내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도시국가의 시민의 영혼을 이끄는 정치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이었다.

파이돈이라는 것은 교양교육입니다. 직업교육이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는 직접 교육을 일삼고 있으며 교양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비판할 때, 사실 소크라테스 자신은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참다운 유능함은 교육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히포크라테스를 도시의 유능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정치술이 가르쳐질 수 없음을 보이고 따라서 유능성에 대한 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장광설(長廣舌)을 늘어놓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대화편에는 모순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에게 말을 길게 하지 말고, 딱딱 끊어서 연설이 아닌 argument로 하는데요. 사실은 소크라테스 자신도 굉장히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태도 변화는 사실 놀랄만한 사실이 못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교육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아니 자기의 직업에 자신만만하고 예전의 종교가, 시인, 체육가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기변호를 할 계기를 만들어 주어 교육에 대한 그의 의견을 이끌어내려는 유도작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프로타고라스로 하여금 펼치게 하기 위해서 유도작전을 펴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유도작전을 펴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소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가 자기를 찾아와서 프로타고라스를 향해 불평을 하면서, 그가 혼자만 지(知)자이며 히포크라테스를 지자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할 때, 보수만 제공하면 그를 지자로 만들 것이라고 유도하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재산과 친구의 재산까지 바치면서 프로타고라스의 교육을 받겠다고 털어놓았다.

이 기회를 붙잡아서 소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와 대화를 시작하고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베풀었다. 이와 비슷하게 소크라테스가 히포크라테스에게 이의를 늘어놓자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유도작전을 편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아직 젊은 사람이라서 단 한 마디의 유도작전으로써 소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를 대화로 끌어들었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는 이미 널리 명성이 드높은 소피스트이며 도도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커다란 문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자신도 장광설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표면적인 겸손한 태도로 프로타고라스를 유혹하죠. 당신이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나의 생각은 수그러들고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믿

고 싶어진다. 당신은 많은 경험과 학문을 쌓았으며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밝히는 부분이 있었죠. 자기가 더 이상 소피스트임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인간의 유능성이 교육될 수 있다는 것을 서슴지 않고 더 명백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작전에 말려든 포로타고라스는 유용성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소크라테스의 이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그의 명예를 걸고 mythos와 logos가 합쳐진 일장연설을 하게 된다.

#### ▲ mythos가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은 뒤에 요약해 놓았는데요, 뒤로 넘어가죠. 77쪽. 프로타고라스가 arete는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끌어들이 설명하죠.

신화라는 것은 희랍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담론적인 배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신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arete는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청중 낭독)

프로타고라스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차용하죠.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보통 문명의 탄생을 상징하죠. 프로메테우스가 불과 지혜를 인간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불은 요즘말로 하면 과학이고요 지혜는 인문사회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바위산에 묶어 독수리에게 쪼아 먹이게 하잖아요. 자본주의의 탄생을 다룬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고삐 풀린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에서 해방되면서부터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프로메테우스는 지각(知覺)상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본다는 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선견지명이 있는데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런 식의 신화는 나중에 누크리티우스에게서도 나오죠. 로마시대 공화정 말기에 산 사람인데요. 자연에 관하여. 아토미즘, 원자를 갖고 우주를 설명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지요.

지금은 주로 자연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진화가 어떻게 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어떻게 농업이 등장하고, 오천 년 전에 정치 제도가 탄생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의 하나의 원형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원형적인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mythos를 갖고 자기 얘기의 근거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 사람(희랍인)들에게 mythos란 역사니까. 그 안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지요.

가장 중심은 물론 역사죠. 신들의 싸움 같은 거는 귀족들의 왕권다툼이고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귀족과 평민의 관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신화에 자주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인간이 도전했다가 몰락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죠, 귀족들이 평민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기어올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죠. 딱히 뭐라고 하나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고 간단히 재단할 수 없죠. 지금 분화되어 있는 모든 담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의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가장 일차적인 것은 역사죠, history. mythos 는 역사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로 말하자면 자연사학이죠. 어쨌든 프로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그것이 신들이 인간한테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의 앞에 봉썩쓰 양식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보죠.

프로타고라스는 mythos 에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동물과 사람의 발생과정을 더듬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보존을 위하여 동물에게 없는 생활조건인 도시를 갖게 되고, 모든 사람이 수치와 법을 갖게 되었는가를 말한다.

logos를 통하여 부정을 행한 사람을 벌하고 질책하는 것은 교육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하는 중요한 핵심이죠. 만약에 logos란 것이 없고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질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잘잘못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벌을 주고 질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은 성립하지 않겠지요. 또 부모가 유능하다고 하여 그들의 자식들이 꼭 유능하게 될 수는 없으나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유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의 교육 가능성을 역설하였다.

교육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선천적인 것을 강조하죠. 유전을 강조하죠. 프로타고라스가 불 적에는 후천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거죠. 그 교육은 결과 양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으며, 그 주장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에도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프로타고라스의 연설에 매혹 당하여 그의 말이 끝난 후에도 그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며, 그의 연설을 듣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프로타고라스의 연설에 만족하지는 못하였다.

mythos는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 이성의 발전이 아직 유아적인 단계에 있을 때,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설복시키는 수단이었지만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예민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진 서양사에서 일종의 탈신화화(demytholopisation)이지요. 탈신화화가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아테네 계몽사학이지요.

보통 계몽이라는 말을 쓸 적에 그 말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뉘앙스가 탈신화화입니다. 첫 번째로 크게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 아테네 시대이고 두 번째가 근대 계몽사상이죠. 아테네의 계몽사상은 그 이전의 mythos를 비판한 거지요.

계몽이란 말의 핵심적인 사상은 비판이죠. kritik이죠. 근대 계몽사상은 뭘니까. 물론 이진 유대 기독교를 통한 사상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계몽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정신적인 차원을 물질적 생물학적 차원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진형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mythos 라는 것은 그때까지 회랍사람들이 믿고 있던 mythos 를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바로 mythos 에서의 logos예요. mythos에서 logos로란 표어죠. 과연 이 표어가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현대 독일 철학자에게서 나온 말인데요. 저 말을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mythos를 믿는 사람들과 그것을 비판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골이 생깁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연도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요. 플라톤 같은 경우엔 참 묘하지요. 겉으로 보기엔 mythos를 비판하고 철학으로 가는 듯이 보이지만 중요한 대목에서는 mythos를 끌어들이거든요.

철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주로 신화를 끌어들이지요. 철학적 설명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은 신화를 끌어들이어서 설명을 하죠. 어쨌든 프로타고라스의 mythos적인 설명을 갖고는 소크라테스는 만족을 못 하죠.

프로타고라스가 mythos를 연설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logical하게 분석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의 logos는 정치가나 변론가의 장광설과

비슷한데, 동(銅)으로 만든 그릇을 한번 두들기면 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막지 않으면 계속 울리듯 정치가나 변론가는 한번 질문을 받으면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프

로타고라스는 그의 연설 속에서 그의 상식과 언변술을 과시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의 지위를 밝히지 못하고 듣는 사람에게 자기주장을 설득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지적인 엘리트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장광설을 분해하고, 그 부분을 비판하고, 부분과 부분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소크라테스가 시도한 것은 이런 작업이다.

그래서 지적으로 날카롭게 보면 허점투성이인 얘기를 거대하고 포장해서, 말하자면 대중에게 장광설로 얘기하는 것 -요새로 치면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반론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죠. 프로타고라스의 장광설을 문제 삼는 소크라테스가 그의 연설에서 끄집어낸 문제는 무엇이나. 유능성 자체에 성립하는 일과 다의 문제다, 혹은 전체와 부분의 문제다.

존재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죠. 프로타고라스의 얘기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소크라테스가 집어내서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의, 절제, 경건. 경건은 국가편에서 덕을 얘기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 정의, 용기, 지혜 정도만 나오죠.

소크라테스는 유능성이란 단 하나이며 정의, 절대, 경건은 그것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지, 또는 위의 여러 유용성들이 각기 다른 것인지 엄밀히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를 프로타고라스에게 요청했다.

정의와 경건과 절제. 이것들이 서로 별개의 것들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경건과 절제 사이에는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exteriority. 만약에 정의, 경건, 진리가 덕이라는 것의 부분일 뿐이라면 이것들은 이 덕 전체에 내부성(interiority)에 속하게 되죠.

#### ▲ 일자성과 다기성의 문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외부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들은 세 개죠. 세 가지의 다(多)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성을 전제할 적에는 삼이지만 동시에 1이죠. 이런 식의 차이가 있죠.

하나로서의 3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1+1으로서의 3도 있잖아요. 즉자적, it itself로서의 3이 있고 1과 1과 1이 더한 결과로서의 3이 있을 수 있지요. 똑같지만 다른 3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능성에 있어서의 1과 다. 전체와 부분의 문제는 아레테, 영혼의 일자성과 다기성과 연관된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사람의 영혼이 하나인데요.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용

어지만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은 사람마다 하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지, 성격, 지혜, 용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혼이란 것은 일자성, 하나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다기성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즉 일과 다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지요. 현대적인 맥락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죠. 무의식이란 것이 생기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인데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죠. 하나고 둘이죠.

이런 식으로 영혼의 일자성과 다기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직업이 기술적이며, 기술교육자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양수업은 영혼을 정화하는 교육이라고 말했거니와 교양교육은 통일된 일자로서의 영혼을 찾으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영혼이 신체와 결합함으로써 분기되는 능력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많은 소피스트들은 영혼의 분기된 능력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게 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진단이죠.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본래 영혼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일된다, 조화롭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하면 일과 다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는 다인데 모순되지 않고 하나로 정의되어 있고, 1은 1인데 limit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분절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조화라고 하죠. 또는 통일성. 오늘날에도 대학교육에 있어서 전공과 교양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복잡한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교양교육이란 것이 별 내실이 없으니 전공교육을 튼실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미국의 어떤 대학은 학부에 전공이란 게 없습니다. 4년 내내 교양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가서야 전공을 공부합니다.

즉 직업교육과 교양간의 관계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을 비난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이유이죠.

즉 영혼을 조화롭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의 영혼에는 하나의 arete가 있는 것인지, 복잡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회에서는 악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좋은 아빠라는 역설이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어쨌든 다기화된 유능성이 하나의 유능성으로 통일될 때 비로소 원만한 영혼이 성립하며 분열과 충돌, 추함과 병이 없는 영혼이 성립한다.

프로타고라스가 도시국가의 자유인의 자질을 상대로 하여 교양교육을 한다고 천명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붙잡고, 프로타고라스가 스스로 베풀려고 하는

교육의 진위를 그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지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전체와 부분에 관한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사실 그 전에는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전에 얘기했듯 눈만 뜨면 전쟁이니까 전사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직업교육이 우선시되었죠. 자유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의 시대를 벗어나서 평화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고요.

arete의 유능함의 전체와 부분이 금덩어리에 있어서의 전체와 부분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묻는 소크라테스.

#### ▲ 동종(同種)과 이종(異種)의 문제

이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의 대화편은 철학적 용어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의 것들입니다. 이데아 같은 것도 그 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데아의 용법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엔 전문용어 몇 개로 표현될 것을, 이때는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동종(homogeneity)과 이종(heterogeneity)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문제입니다.

금덩어리는 금덩어리 전체의 이질성이 없는 거죠. 질적으로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눈다고 해서 차이는 없죠. 뭐만 차이가 남니까. extension만 차이가 나겠죠. 외연만요. 데카르트의 기계론에서는 실체가 두 개잖아요.

res extensa와 res cositans. 그 중에서 res extensa가 바로 extension입니다. 결국 데카르트 기계론의 핵심은 엄청나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등질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색깔이나 냄새 등 다 빼고. 기하학으로 설명 가능한 것만이 일차적인 세계죠. 즉 이런 것으로 다 환원하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얼굴은 heterogeneity죠. 자르면 죽지요. 더 이상 그게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자르면 더 이상 과거의 그것이 아니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사고를 할 적에 아주 기본적인 사고는 이겁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번역하면 좋은 것이, 동질성과 이질성의 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마치 우리가 reality를 현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울릴 때가 있고 실체가 어울릴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등질성, 다질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은 후자입니다. 동질성, 이질성은 어떤 때에 어울리냐 하면 다(多)가 전제될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즉 등질성의 문제죠.

동질성은 무언가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등질성이죠. 다르다는 의미보다는 다질적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얘기는 등질적인 거죠. 사람 얼굴을 다질적이죠.

그런 관계가 금이나, 사람 얼굴이냐는 거죠. 물론 사람 얼굴이겠죠. 왜냐하면 절제, 용기는 각각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의 답은 얼굴 같다는 거죠. 용기는 있어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정의롭지만 지혜가 모자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식, 정의, 용기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프로타고라스의 이런 주장은 경건한 것은 본성상 정의로운 것이 아니며, 경건한 것 또한 본성상 정의로운 것이 아니므로 경건은 정의롭지 못한 것, 즉 비정의의 본성을 갖게 된다.

영혼은 등질적이지 않고 다질적인 거죠. 다질적이라는 말은 이미 영혼은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질적이라면 영혼이 하나가 아닌 거겠죠. 다질적이라는 것은 영혼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경건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경건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죠. negation, 부정의 문제죠.

부정도 두 가지가 있죠. 말이 좀 이상한데요. 경건한 것은 본성상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정의도 본성상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엇무엇이 아니다, is not은 그것을 뺀 것들 중의 무엇이라는 의미와 그것의 반대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is not 무엇"은 "negation 무엇"입니다. "not x" 또는 "非 x"입니다.

하나는 열린 부정이고 하나는 정확히 지적하는 부정이죠. 非 x는 x 아닌 어떤 것이죠. 그 얘기는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여집합이죠. 예컨대 꽃 중에서 장미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장미 뺀 나머지 꽃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꽃 중에서 장미 아닌 어떤 것.

그와 반대로 이것의 완전한 반대, opposition인 경우가 있어요. 대립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항(二項)인 경우지요. 비(非)남자는 당연히 여자이죠. 비(非)척추동물은 당연히 무척추동물이고요. 아니면 degree가 있고 그 degree 중에서 끝을 가리키는 거죠. 비(非)흰색이라고 하면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색깔인데요. 그 중에서도 검정이 opposition이지요.

흰색의 negation이라고 하면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히 반대의 의미를 뜻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의 관계가 contrary이지요. contradictory는 모순적인 것이고요. contrary는 대립하는 것이지요.

## ◆2교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논쟁 2

### ▲ 경건한 것=정의로운 것에 대한 논쟁

소크라테스의 이런 지적은, 경건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호소하는 거죠. 그리스인들에게 경건한 것은 곧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프로타고라스가 정의나 경건함을 부정의 입장에서 봤다면, 소크라테스는 동일성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다’라는 것도 맥락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이다’라는 것도 완전한 동일성이 있죠.  $A=A$ . 철수는 철수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말하는 공식의  $=$ 은 같은 게 아니죠. 좌우의 생김새가 다른데 같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단어를 씁니까.

등가성이죠. equalit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실제 수학에선 이렇게 쓰고 있죠. 이런 경우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무얼 말할까요.

포함관계일 때도 이렇게 쓰죠. 예컨대 에로리카는 교향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철수는 한국인이다. 이때의 ‘이다’는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이 뒤의 것에 포함된다는 의미죠.

그러니 경건한 것은 정의롭다는 얘기가 일단  $A=A$ 는 아니지요. 경건한 것은 곧 정의로운 것이라고 바꾸어 써도 좋고, 아니면 정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건한 것이 그 중의 하나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여기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죠.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무엇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로마 속담에 빨리 갚는 것은 두 배로 갚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포함관계가 아니죠. 대체로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통념에 호소해서 경건한 것과 정의로운 것을 negation으로 보는 프로타고라스를 논박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 하나면, 정의는 경건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며 흰색과 검은색,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이 서로 반대되기는 하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하면

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유사하다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소크라테스는 경건한 것과 정의로운 것은 같은 것이라고 논박하자 프로타고라스는 정의와 경건은 비슷하기는 할지 몰라도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의 부연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지요.

정의는 경건과 비슷할 진 몰라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와 그 뒤의 흰색, 검은색, 단단한 것, 무른 것의 얘기는 뭔가 좀 헷갈린 것 같죠. 무엇을 헷갈리고 있죠? 이게 좀 복잡한데요.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 개와 늑대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죠. 또 야구선수와 테니스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개와 늑대가 반대는 아니죠. 헷갈리죠. 앞의 거는 정의나 경건의 resemblance로 인정하지만 opposition의 관계도 비슷하다.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우리가 볼 적엔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것이 아니죠. 반대되는 거죠. 흰색과 검은색,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은 opposition의 관계죠.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비슷한 점이 없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프로타고라스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의와 경건에는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얘기가 되죠. 양쪽 측면을 다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예를 우리가 생각하는 resemblance의 예가 아니라 opposition을 들고 있어요.

(청중 질문)

소크라테스는 이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경건한 것은 같다는 통념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앞에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한 것은 불분명하죠. opposition으로 얘기한 것인지 여집합으로 얘기한 것인지 불분명하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려는 것은 통일성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것과 정의로운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통념에 호소하고 있죠.

반면에 히포크라테스는 그 사이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정교하게 말하자면 resemblance와 opposition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논변에는요.

그리고 만약에 흰색과 검은색,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이 서로 반대되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하려면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해야지요.

흰색과 검은색은 색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거고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은 경도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한다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프로타고라스의 대화편 자체를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이 정도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이 대화편의 특징이 뭐냐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이 그렇듯이 끝을 맺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됩니다. 대화편이 하나의 주제로 가다가, 끝을 맺는데요. 한계에 부딪치면 길을 꺾어 가는 것인데요. 이런 게 한 서너 번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에게 덕의 이해성과 다해성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영혼의 전체성과 다의성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하루모니아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프로타고라스는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지혜, 용기 같은 것들이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들은 다 같다고 말하는 통념과 다르지 않느냐. 결국 다 같기는 한데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프로타고라스는 여전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heterogeneity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아님과 반대됨의 의미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논쟁으로 프로타고라스를 결정적으로 승복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논쟁으로 들어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무분별과 무절제의 뜻을 지닌 회랍어를 끄집어냅니다. 한편으론 지혜가 무분별에 대립되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절제가 무절제에 대립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분별에 대립되어 있고 절제가 무절제에 대립되어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한 사물에는 한 대립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데에 동의를 얻는다. 하나의 사물이 아닌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 아닌 것 중에서 opposition의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지요. 나중에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 대립이 가장 큰 차이로 규정됩니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중 가장 다른 다름이란 대립이라는 겁니다. 그에 소크라테스는 위의 두 명제로부터 지혜와 절제의 동일성을 결론짓는다.

이 논변도 사실 좀 이상하죠. 지혜가 무분별하게 대립되어 있고 절제와 무절제가 대립되어 있는데,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만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절제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무분별과 무절제가 같은 것이 되어야 하죠. 뭔가가 고리가 하나 빠진 겁니다. 이윽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분별이 있음을 프로타고라스가 시인하자 소크라테스는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뜻과 성공한다는 뜻을 함께 지닌 회랍어를 끄집어 낸다.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여전히 이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정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분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원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큰 해를 못 끼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큰

해를 끼친다고 해 봐야 아주 작은 것입니다. 누구를 때린다거나 하는 등.

요즘 일본에서 자기가 살기 싫다고 여덟 명을 죽여서 난리가 났는데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여덟 명을 죽이지만 똑똑한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는 겁니다. 보통 인류 역사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천재적인 사람들이 약간 돌아가면 이상하게 되지요. 히틀러나 네로와 같이, 사실 엄청난 부정을 행한 사람을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할 수 없지요.

소크라테스는 다시 동일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감수성 중의 하나는 영혼의 분열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영혼의 분열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였죠. 영혼은 당연히 통일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혼의 비통일성입니다. 정신분열, 다중인격 등으로 시작해서 영혼이라는 것의 비통일성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감수성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설이나 영화로 많이 표현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타고라스가 더 현대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 유용성에 대한 논쟁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여기에 동의하자 소크라테스는 유용한 것이 선이냐고 묻죠. 프로타고라스는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아도 선한 것이 있다고 하며, 유용성의 상대성을 설파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용성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good입니다. the good이라 하면 유용한 것들이란 말이죠. 이 말도 철학사적으로 골치 아픈 말입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도덕 철학적인 무거운 함축을 떨 때도 있죠.

good과 bad라는 것이 선과 악이라는 무거운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좋음과 나쁨이라는 맥락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말이 무거운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때는 기독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선과 악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뉘앙스를 갖게 되죠. 그러나 회랍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런 무거운 선악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좋고 나쁨의 쪽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나 칸트 이후의 무거운 의미에 익숙한 사람은 가벼운 의미의 good은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회랍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데 유용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없

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도덕철학에서는 나쁘지만 옳은 것이 있지요. 또한 좋지만 옳지 않은 것이 있지요. 그러나 희랍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좋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선입니다. 선인데 좋지 않다. 희랍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 계통이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희랍적인 윤리를 낮게 평가합니다. 기독교적 윤리는 아주 숭고한 것인데 희랍적 윤리는 현실주의적이라는 거죠. 동북아 쪽은 더 그렇고요.

그러므로 희랍 철학에서 유용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용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편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엄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여튼간에 소크라테스가 유용한 것과 좋은 것, 유용한 것과 선, 이것을 비슷하다고 보느냐고 물으니 프로타고라스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자입니다.

희랍사람들에게는 유용성의 절대성, 상대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무거운 의미의 선 보다는 좋다는 의미입니다. 좋다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유용한 것이 절대나 선 이냐는 논쟁은 거기서 더 나아간 논쟁이지요.

음식문화도 그렇지요. 사람에게는 해롭지만 사람 아닌 것에 유익한 것도 있다. 또 사람에게 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으면서 말, 소 등에게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이 있다. 다른 것 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선이라 복잡하고 다양하다. 좋음이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통일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프로타고라스는 이질성을 강조 하는 겁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좋다 나쁘다는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좋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좋음. 자잘한 의미의 좋고 나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을 읽다 보면, 자칫 플라톤을 경건하고 엄숙한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중세의 해석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숭고함, 경건함과 거리가 좀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간 자체의 선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선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 이 사람의 의견이고 그것이 논쟁거리이죠. essential한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어떤 essence가 있다는 입장이 부딪치는 거죠.

어쨌든 프로타고라스는 선이란 좋음이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듭니다. 구성이 이렇듯 산만합니다. 또 시가 나오고요. 무슨 얘기하나 읽어보면 결국 그런 것 같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 한참을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복잡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를 끄집어냅니다. 79쪽부터 104쪽까지. 엄청 긴 얘기를 한참 하고 결론은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실제 대화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지요. 실제 사람의 대화는 매끄럽게 되지 않지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대화할 때 그렇게 매끄럽게 됩니까.

아니죠. 한참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싸우거나 흐지부지 되고 그렇죠. 플라톤의 대화편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실제 대화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죠.

### ◆3교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논쟁 3

#### ▲ 용기란 무엇인가

(청중 낭독)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커리큘럼의 문제죠. 프로타고라스는 시를 이해하는 능력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시를 갖고 사람의 arete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시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사람의 arete로 해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운문과 산문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운문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고대의 문학 작품은 전부 다 운문이죠. 산문 문학 작품이 등장한 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죠. 소설이 등장하는 것은 한 18세기 정도 될까요. 그 전까지는 다 운문입니다. 플라톤은 운문이란 것이 우리의 심정을 자극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갖고는 정연한 논리를 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산문의 입장에서 운문을 비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왜 중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운문은 mythos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Empedocles, BC 490경~BC 430경)는 자기 책을 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명백하게 운문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 절제, 정의, 경건에 용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용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예가 아주 복잡해지죠. 다시 이것들 간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이 대화편의 핵심은 결국 arete들과 arete의 관계, 일과 다(多)의 문제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인식과 행동의 문제가 됩니다. 앎과 삶이 문제가 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는 위의 다섯 가지 중에서 지혜, 절제, 용기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지만 용기만은 위의 네 유용성과 구분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걸 오타인 거 같아요. 정의여야 하겠죠. 명백히 오타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는 비슷하지만. 물론 이게 나중에 가면 정의가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오타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 것인지 모르겠어요.

절제, 지혜, 용기, 정의. 나중에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지혜는 통치자의 덕이고 용기는 수호자의 덕, 절제는 요새 말로 하자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덕이죠. 그런데 정의는 그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좀 헛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냥 오타로 봅시다.

하여튼 지혜, 절제, 경건, 정의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지만 용기는 구분된다.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하고 방종하고 무분별하지만 용기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다.

동양에서는 문관 무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문을 가진 사람의 장점, 무를 가진 사람의 장점이 있죠. 문과 무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서양 같은 경우엔 동북아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결합되어 있죠.

프로타고라스는 계속해서 heterogeneity를 얘기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용기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얘기하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무서워하는 곳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문을 돌려서 arete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냐고 묻죠. 프로타고라스도 이에 동의한다. 아름답다는 말이 그리스 문명에서 갖는 뉘앙스와 현대인들이 갖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스인들에게 아름답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반면 현대인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문화, 예술 영역과 연관되죠. 아니면 대중문화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희랍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말은 넓고 무거운 말이지요. 좀 더 무거운 뉘앙스이지요.

지금도 그런 뉘앙스로 사용하죠. 아름다운 인생. 이런 뉘앙스이지요. 어쨌든 arete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arete의 일부분만 아름다운 것인지를 반문하자, 프로타고라



스는 전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대답한다.

재밌죠.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heterogeneity 쪽으로 얘기를 해오다가 이 대목에서만큼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arete는 아름답다. arete의 일부분은 추할 수 있다는 것은 프로타고라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꼭 소크라테스만이 아니라도 어떠한 arete는 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은 그리스의 언어감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arete는 그 전체에 있어서 분열이 없으며, 조화로 가득 차 있는데, 용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영혼의 능력의 일부분으로서 다른 것들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에만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용기라는 것도 arete의 일부인데, 만약 용기가 다른 덕들과 충돌하고 맞지 않으면 arete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게 되죠. 용기가 다른 덕들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것들 안에 부드럽게 편입되느냐. 이것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 용기와 앎의 관계

잠수부, 기병, 방패를 갖고 싸우는 병사는 그들 각각의 고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까닭에 두려움 없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개인에 있어서도 지식이 없을 때보다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덜 무서워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지식이라 함은 어떤 해당하는 일에 대한 지식이라고 봐야겠죠.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볼 때에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용기가 많다고는 하지 않죠. 우리의 경험으로 볼 적에는요,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유약할 경우가 많지요.

지식이 없어야 단순무식해야 용기가 많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머리를 많이 굴리기 때문에 무서운 데서 빠지려고 하죠. 이때의 지식이란 그것을 터득하고 있다는 거죠. 터득하고 있으니 당연히 덜 무섭겠죠.

용기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지식으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식이 없으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살만이 있느냐고 물으니 프로타고라스는 그러한 사람은 있으나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지식이 없으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때의 미친 사람의 뉘앙스도 현대적 의미는 아니죠. 잠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잠수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죽겠죠. 그런 뉘앙스죠.

광기를 말한대기보다는 이런 의미죠. 방패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방패를 갖고 싸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죽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용기 있는 사람이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확인하고.

그런데 지식이 없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지혜가 용기가 아니겠는가 하고 묻는다. 그야말로 단순무식해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는 일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등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통일성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가 용기가 아니겠는가.

지혜가 무식한 용기가 아니라 잘 된 용기의 전제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지만, 지혜가 곧 용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중에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지식 없이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 곧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로타고라스가 말하죠. 지식과 용기를 구별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씨름을 잘 할 능력을 갖고는 있으나 이 능력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이며 따라서 지식이 힘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씨름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당연히 씨름을 더 잘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씨름 하는 그 능력이 원래 그 사람에게 힘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힘과 지식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가져오는 힘은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힘이다. 이 획득된 능력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곧 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만약 획득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는 곧 힘이 되겠죠. 그리고 이 능력은 지식, 광기, 격정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지만 힘은 체질의 선천적인 것이며 신체의 좋은 양육(養育)의 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혜는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용기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다. 거기에 물론 양육이 덧붙여져야만 하겠지만.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의 힘이라는 것은 체질적이라는 거지요.

무서워하지 않음과 용기도 비슷한 관계에 있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용기가 있다는 말은 지혜만 갖고 용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서움을 모른다는 것은 기술, 걱정, 광기에서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지만 용기는 타고난 소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프로타고라스의 의견이죠. 덕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용기라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 대화편의 중심 주제로 말하자면 절제나 지혜나 경건 같은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용기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천적이니까요. 가르친다고 해서 용기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는 각각 신체와 정신에 자리 잡고 있으나 그것의 선천적인 소질과 양육에 좌우되며 기술과 걱정과 광기로부터, 힘의 경우에는 후천적인 능력이 나오며 용기의 경우에는 무서움을 모름에서 나온다.

이 대목도 약간 이상하죠. 이때의 걱정이란 말은 thymos란 말을 번역한 말이지요. thymos란 말은 걱정도 걱정이지만 기개입니다. 그 다음에 광기라는 말은 무엇을 번역한 것이죠? 원어를 병기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보통 hybris를 광기로 번역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enthousiasmos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enthusiasm이지요. enthusiasm.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 맨 처음에 호메로스가 “이 책은 내가 쓴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뮤즈가 얘기한다고 하죠.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명에 드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성과 의식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뮤즈가 말하는 것이고, 뮤즈가 말하는 것이 호메로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려면 호메로스 자신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신명에 들어야 하죠.

이 단어일 것 같기도 하고. 이 경우라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광기를 나중에 자세히 한번 봐야겠네요. 아무튼 이런 것은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지요.

아, mania도 가능하죠.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현대의 정신병을 뜻하는 용어 끝에 이 단어가 들어가죠. 무슨 증이라고 하죠. 어떤 몰두의 의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기술과 걱정과 광기로부터 힘의 경우에는 후천적인 능력이 나오며. 말이 참 이상한데요. 앞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문장 자체도 이상하고.

프로타고라스에 의하면 힘과 용기는 각각 신체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으나 그것들의 선천적 소질과 좋은 양육에 좌우되며 기술과 걱정과 광기로부터 힘의 경우에는 후천적인 능력이 나오며 용기는 무서움을 모름에서 나온다.

프로타고라스는 선천성과 후천성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힘과 용기라는 것은 신체와 영혼의 소질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양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 것도 덧붙여지는데요. 무엇으로부터? 기술, 걱정, 광기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열정과 집념으로부터요. 그렇죠?

결국 프로타고라스가 지혜, 절제, 경건, 정의는 서로 비슷하지만 용기는 위의 네 가지와 구별된다는 것의 근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즉 용기는 선천적이며 이는 힘이 신체의 선천적인 것과도 같다.

물론 좋은 양육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후천적인 것도 인정하는 거죠. 기술, 걱정, 광기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프로타고라스는 다른 덕에 비해 용기라고 하는 것, 힘이라는 것은 소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것이 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대화편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절제, 지혜, 경건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만 용기는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덕의 일과 다의 문제죠. 복잡하기는 한데 줄곧 문제가 되는 것이죠. 논리가 구불구불해서 잘 따라가야 하는데요.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heterogeneity와 homogeneity의 문제죠.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것은 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플라톤의 대화편이 대개가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통일성과 등가성, 동일성을 얘기하고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성, 이질성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용기라는 것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잡하고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